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시사프리 4면

##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현장 위주 의정활동 전개

### 경천사 진입로 도로개선 공사 타당성 확인 현장방문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위원 모두는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지난 9일 인수봉로23가길(경천사 진입로) 도로환경 개선공사 사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도로여건과 사업필요성을 검토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구청 김기용 도로관리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경천사 진

입로 폭 6m, 길이 173m 도로가 현재 노후 파손되어 차량과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급경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아스팔트 포장, 급경사 미끄럼방지 포장, 측구 및 경계석 설치 등의 도로환경 개선공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개선 공사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을 비롯한 이용균, 박문수, 이영심, 한동진, 유인애, 김명숙 의원들은 급경사의 노후파손된 도로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통행불편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성을 우려 하며 도로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사업비 132,900천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향후 추경예산 등을 통한 예산확보에 관심과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그리고 급경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재 계획중인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유효기간이 2~3년인 만큼 효율성과 효과성 있는 다른 사업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김도연 위원장은 "통행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한 예산 확보와 공사시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

서울포스트 6면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가 지난 9일 인수봉로23가길(경천사 진입로) 도로환경 개선공사 현장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도로개선 공사 타당성 확인 현장방문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지난 9일 인수봉로23가길(경천사 진입로) 도로환경 개선공사 사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찾아 도로여건과 사업필요성을 검토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구청 도로관리과장(김기용)의 설명에 따르면, 경천사 진입로 폭 6m, 길이 173m 도로가 현재 노후 파손되어 차량과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급경사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아스팔트 포장, 급경사 미끄럼방지 포장, 측구 및 경계석 설치 등의 도로환경 개선공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로개선 공사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을 비롯한 이용균, 박문수, 이영심, 한동진,

유인애, 김명숙 의원들은 급경사의 노후파손된 도로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통행불편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성을 우려하며 도로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다만 사업비 132,900천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향후 추경예산 등을 통한 예산확보에 관심과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또 급경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재 계획중인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유효기간이 2~3년인 만큼 효율성과 효과성 있는 다른 사업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김도연 위원장은 '통행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한 예산확보와 공사시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경천사 진입로 도로환경 개선공사 사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강북구의회 현장방문- 복지건설위원회

### 경천사 진입로공사 타당성 확인 현장방문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위원 모두는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9일 경천사 진입로(인수봉로23가길) 도로환경 개선공사 사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찾아 도로여건과 사업 필요성을 검토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경천사 진입로는 폭 6m, 길이 173m 도로로 현재 노후 파손되어 차량과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급경사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아스팔트 포장, 급경사 미끄럼방지 포장, 측구 및 경계석 설치 등의 도로환경 개선공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이날 도로개선 공사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들은

급경사의 노후파손된 도로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통행불편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성을 우려하며 도로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사업비 1억3,200여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향후 추경예산 등을 통한 예산확보에 관심과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그리고 급경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재 계획중인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유효기간이 2~3년인 만큼 효율성과 효과성 있는 다른 사업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도연 위원장은 "통행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한 예산 확보와 공사시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도연 위원장 현장 방문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위원 모두는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지난 9일 인수봉로 23가길(경천사 진입로) 도로환경 개선공사 사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찾아 도로여건과 사업필요성을 검토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구청 도로관리과장(김기용)의 설명에 따르면, 경천사 진입로 폭 6m, 길이 173m 도로가 현재 노후 파손되어 차량과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급경사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아스팔트 포장, 급경사 미끄럼방지 포장, 측구 및 경계석 설치 등의 도로환경 개선공

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로개선 공사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을 비롯한 이용균, 박문수, 이영심, 한동진, 유인애, 김명숙 의원들은 급경사의 노후파손된 도로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통행불편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성을 우려 하며 도로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다만 사업비 132,900천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향후 추경예산 등을 통한 예산확보에 관심과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그리고 급경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재 계획중인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유효기간이 2~3년인 만큼 효율성과 효과성 있는 다른 사업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도연 위원장은 '통행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한 예산 확보와 공사시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